



백봉 김기추 거사의 미발표 법문록



다시 읽는 효당 최범술 스님의 법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형상이 있는 것은 진짜가 아니다

수술법문 ①

수술 법문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약 너의 병든 양쪽 다리를 끊어내고 갖 죽은 일본 사람의 알맞은 다리로 바꾸어 붙여서 무병인을 이루었을 때 너의 어머니는 너의 어머니요 너의 아내는 너의 아내요 너의 자식은 너의 자식이라 일러도 좋겠는가?

일본사람 다리예요. 요새 그리 멀 겁니다. 의술이 발달해서, 이 뇌도 수술한다 니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다리는 일본 사람의 그걸로 바꿨어요. 집에 돌아가면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고 어머니도 있어. 대답이 어떻노?

좋다 마다하겠습니까. 좋다 마다 하셨습니다. 자신 만만한 대답이예요. 그럴 거예요. 다리 하나쯤 바꾸었다고 해서 무슨 상관이 있나요?

만약에 이번에는 너의 병든 양쪽 팔을 끊어내고 갖 죽은 중국 사람의 알맞은 팔로 바꾸어 붙여서 무병인을 이루었을 때 너의 어머니는 너의 어머니요 너의 아내는 너의 아내요 너의 자식은 너의 자식이라 일러도 좋겠는가?

좋다 마다하겠습니까. 만약에 이번에는 너의 병든 엄통과 공팔을 도려내고 갖 죽은 미국 사람의 알맞은 엄통과 공팔으로 바꾸어 붙여서 무병인을 이루었을 때 너의 어머니는 너의 어머니요 너의 아내는 너의 아내요 너의 자식은 너의 자식이라 일러도 좋겠는가?

좋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번에는 너의 병든 허파와 간장, 심장을 도려내고 갖 죽은 독일 사람의 알맞은 허파와 간장 심장으로 바꾸어 붙여서 무병인을 이룰 때 너의 어머니는 너의 어머니요 너의 아내는 너의 아내요 너의 자식은 너의 자식이라 일러도 좋겠는가?

좋겠지요. 만약에 이번에는 너의 병든 목구멍과 이 혀 뇌를 뽑아내고 갖 죽은 프랑스 사람의 알맞은 목구멍과 이 혀 뇌로 바꾸어 붙여서 무병인을 이룰 때 너의 어머니는 너의 어머니요 너의 아내는 너의 아내요 너의 자식은 너의 자식이라 일러도 좋겠는가?

좋겠지요. 만약에 이번에는 너의 병든 눈알을 깨 눈알로 코는 원숭이 코로 귀는 고무로 머리카락은 가발로 바꾸어 붙여서 무병인을

이룰 때 너의 어머니는 너의 어머니요 너의 아내는 너의 아내요 너의 자식은 너의 자식이라 일러도 좋겠는가?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수술을 했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말이예요. 자, 전부가 바뀌어졌어. 이 사람 국적이 어디입니까? 한국사람 아무 것도 없지? 손가락 하나라도 있으면 손가락은 국적이 한국이요 이렇게 하겠는데. 자, 국적이 어디일꼬? 실로 이리 되거든. 의학이 발달되면 이리 돼. 의학이 발달이 안 되더라도 이진 증명이 되는 거여. 과학적으로 완전히 바뀌었어. 여 기 의사에게 물어 봐요. 완전히 바꾸었어. 머리털까지 손톱까지 눈알까지 다 바뀌었어.

그러나 한국사람 아니지? 관념이 아니거든. 과학적이거든. 이진 의학적이거든.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들의 일이에요. 여러분 자신들이 이 도리를 깨치지 못하면 이진 남의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자신들이 이 도리를 깨

치면 전부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서양이나 프랑스나 할 것 없이 주무르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의 몸은 나의 어머니가 낳아주신 나의 몸이 아니고 일본, 중국,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사람의 것이 확실하고 따라 개와 원숭이의 것임도 분명할 뿐 아니라 또는 남의 손을 빌려서 만들어진 것도 있으니 어머니를 어찌 나의 어머니라 이르겠으며 아내를 어찌 나의 아내라 이르겠습니까. 이 려진 내는 누구이며 어느 나라 사람이며 어떤 물건입니까?

이진 솔직한 말일 겁니다. 어머니의 인연은 없거든. 완전히 바꿨으니. 그러하니 어찌 아내가 자기 아내나 말이예요. 한국이라는 이런 관념이 있고 관념으로는 우리 어머니 이리 할지 모르지만 어디 관념 가지고 되나요? 사실이여야 되거든. 의학적으로 볼 때 사실이여야 되거든. 도저히 어머니라고 할 수가 없어. 어머니라고 하고 아내라고 하고 자식이라 하면 이진 어불성설이여.

만일 색신을 바탕으로 한다 하면 그렇 거든. 거짓말 아니예요. 전부 바꿨는데 딱 깨 놓고 국적이라고 한다면 일본도 국적이요 중국도 국적이요 프랑스도 국적이요 어디도 전부 국적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불법이 어떻게 무서운 거예요. 불법이란 우물쭈물 해서 되는 것이 아니예요. 술 한 잔 먹으면 취하는 것이 불법이예요. 밥 한 술 먹으면 한 술 먹은 가치 밖에 없는 것이 불법이예요. 밥 한 술 먹어서 배가 부르다면 그건 불법이 아니예요.

그러하니 이 사람이 어찌 하면 좋겠느냐 말이예요. 집에 돌아갔다 말이지. 그러면 어머니를 어머니라 해야 되지 않아요? 지금은 관계가 없어. 지금은 전혀 눈꼽만치도 관계가 없어. 어머니라는 그런 말마따가 있기로서니 그 사람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말이여. 솔직한 말로 다행스러운 것은 있어. 여자 몸으로 바뀌었으면 큰 일나버렸지. 여자 몸 바꾼 것은 아니예요. 그럼 참 곤란할 거라. 여러분, 어떠한 모습이라도... 태양으로부터 저 별까지 돌이나 나무나 모습 있는 것은 진짜가 아니라는 것만 아세요.

그러하니 이 사람이 어찌 하면 좋겠느냐 말이예요. 집에 돌아갔다 말이지. 그러면 어머니를 어머니라 해야 되지 않아요? 지금은 관계가 없어. 지금은 전혀 눈꼽만치도 관계가 없어. 어머니라는 그런 말마따가 있기로서니 그 사람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말이여. 솔직한 말로 다행스러운 것은 있어. 여자 몸으로 바뀌었으면 큰 일나버렸지. 여자 몸 바꾼 것은 아니예요. 그럼 참 곤란할 거라. 여러분, 어떠한 모습이라도... 태양으로부터 저 별까지 돌이나 나무나 모습 있는 것은 진짜가 아니라는 것만 아세요.

그러하니 이 사람이 어찌 하면 좋겠느냐 말이예요. 집에 돌아갔다 말이지. 그러면 어머니를 어머니라 해야 되지 않아요? 지금은 관계가 없어. 지금은 전혀 눈꼽만치도 관계가 없어. 어머니라는 그런 말마따가 있기로서니 그 사람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말이여. 솔직한 말로 다행스러운 것은 있어. 여자 몸으로 바뀌었으면 큰 일나버렸지. 여자 몸 바꾼 것은 아니예요. 그럼 참 곤란할 거라. 여러분, 어떠한 모습이라도... 태양으로부터 저 별까지 돌이나 나무나 모습 있는 것은 진짜가 아니라는 것만 아세요.

그러하니 이 사람이 어찌 하면 좋겠느냐 말이예요. 집에 돌아갔다 말이지. 그러면 어머니를 어머니라 해야 되지 않아요? 지금은 관계가 없어. 지금은 전혀 눈꼽만치도 관계가 없어. 어머니라는 그런 말마따가 있기로서니 그 사람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말이여. 솔직한 말로 다행스러운 것은 있어. 여자 몸으로 바뀌었으면 큰 일나버렸지. 여자 몸 바꾼 것은 아니예요. 그럼 참 곤란할 거라. 여러분, 어떠한 모습이라도... 태양으로부터 저 별까지 돌이나 나무나 모습 있는 것은 진짜가 아니라는 것만 아세요.

그러하니 이 사람이 어찌 하면 좋겠느냐 말이예요. 집에 돌아갔다 말이지. 그러면 어머니를 어머니라 해야 되지 않아요? 지금은 관계가 없어. 지금은 전혀 눈꼽만치도 관계가 없어. 어머니라는 그런 말마따가 있기로서니 그 사람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말이여. 솔직한 말로 다행스러운 것은 있어. 여자 몸으로 바뀌었으면 큰 일나버렸지. 여자 몸 바꾼 것은 아니예요. 그럼 참 곤란할 거라. 여러분, 어떠한 모습이라도... 태양으로부터 저 별까지 돌이나 나무나 모습 있는 것은 진짜가 아니라는 것만 아세요.

그러하니 이 사람이 어찌 하면 좋겠느냐 말이예요. 집에 돌아갔다 말이지. 그러면 어머니를 어머니라 해야 되지 않아요? 지금은 관계가 없어. 지금은 전혀 눈꼽만치도 관계가 없어. 어머니라는 그런 말마따가 있기로서니 그 사람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말이여. 솔직한 말로 다행스러운 것은 있어. 여자 몸으로 바뀌었으면 큰 일나버렸지. 여자 몸 바꾼 것은 아니예요. 그럼 참 곤란할 거라. 여러분, 어떠한 모습이라도... 태양으로부터 저 별까지 돌이나 나무나 모습 있는 것은 진짜가 아니라는 것만 아세요.

그러하니 이 사람이 어찌 하면 좋겠느냐 말이예요. 집에 돌아갔다 말이지. 그러면 어머니를 어머니라 해야 되지 않아요? 지금은 관계가 없어. 지금은 전혀 눈꼽만치도 관계가 없어. 어머니라는 그런 말마따가 있기로서니 그 사람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말이여. 솔직한 말로 다행스러운 것은 있어. 여자 몸으로 바뀌었으면 큰 일나버렸지. 여자 몸 바꾼 것은 아니예요. 그럼 참 곤란할 거라. 여러분, 어떠한 모습이라도... 태양으로부터 저 별까지 돌이나 나무나 모습 있는 것은 진짜가 아니라는 것만 아세요.

그러하니 이 사람이 어찌 하면 좋겠느냐 말이예요. 집에 돌아갔다 말이지. 그러면 어머니를 어머니라 해야 되지 않아요? 지금은 관계가 없어. 지금은 전혀 눈꼽만치도 관계가 없어. 어머니라는 그런 말마따가 있기로서니 그 사람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말이여. 솔직한 말로 다행스러운 것은 있어. 여자 몸으로 바뀌었으면 큰 일나버렸지. 여자 몸 바꾼 것은 아니예요. 그럼 참 곤란할 거라. 여러분, 어떠한 모습이라도... 태양으로부터 저 별까지 돌이나 나무나 모습 있는 것은 진짜가 아니라는 것만 아세요.

백봉 김기추 거사 기념사업회

진정한 발심은 참회로부터 시작

6. 참회계(懺悔偈)

我昔所造諸惡業 皆由無始貪瞋癡
從身口意之所生 一切我今皆懺悔

위대한 성자인 부처님의 모든 덕을 살펴보고 스스로를 반성할 때 마음 속으로 깊이 참회스럽고 미안한 생각이 난다. 자기 자신이 한 노릇을 돌이켜 보고 심히 참회한다. 양심의 발로로 참회를 심각히 하는 사람은 그만큼 도(道)를 잘 닦아 구하는 것이 된다. 또한 도를 열심히 닦고 하고 거룩한 일을 칭찬 찬탄하는 사람은 한층 더 정성스러이 참회하는 것이다. 이 참회계는 보현행원품(普賢行願品)에 있는 것이다.

원효대사는 대승육장참회(大乘六懺悔)에서 우리가 대승(大乘)을 구하며 지극한 자기 반성을 하는 것은 도를 구하는 뜻도 있지만 우리가 욕계(欲界)나 이상(理想)의 세계를 유행(遊行)하면서 중생을 교화(教化)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유행이란 닦으면서 다닌다는 것이 아니라 중생을 지도하고 교화한다는 뜻. 수행자(修行者)는 욕계를 건지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부처님 앞에 선사(宣誓)를 하는 것이며, 범어로 이를 우파삼바다 라고 하며 유행하는 수행자의 의식(意識)은 늘 이런 것이다.

우리가 일상생활(日常生活)에 있어 모든 부분이 뒤잡혀 있고 허둥대는 것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여러 가지 객관적(客觀的)인 여건에 사로잡혀서 그러한 외부현상(外部現象)의 반응인 '나' 라는 것, 내것이라는 애집(我執)에 포로가 되어서 참다운 내부의 자기 모습을 분간해 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지금 성자를 모셔 놓고, 덕행(德行)을 칭양 찬탄하고 나서 자신의 일을 돌이켜 볼 때 참회에 젖지 않을 수 없다. 부끄럽고 창피스러워 이제는 회개하고 참회를 한다. 우리는 늘 얽매어 허둥거리며 못된 짓을 하고, 자기 자신도 모르게 못된 짓에 사로잡혀 흥미를 갖고 괴임을 받고 미혹되곤 하는 것이다.

이것은 안으로는 육정(六情)에 사로잡혀서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는 알음알이를 내고 밖으로는 여섯 가지 경계, 육진(六塵)에 있으면 무엇이건 다 되고, 만사형통할 것만 같다. 권세를 누리고 한번 잘 살아 보고 싶다. 한번 땅 땅 울리어 보아야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확천

금을 노리던지, 업관 운동을 하여서라도 권문에 발을 들여 놔야겠다. 이런 따위 탐욕이 생기어 그것에 열심이고 충실할 수록 좋은 것이며, 이를 많이 할수록 성공하는 것인 줄 알고 있다.

이와같은 탐욕을 중심한 생각을 특출 떨어 버리고 '안으로 모든 부처님을 모셔들여, 불가사의하게도 우리를 도와 주는 일들의 그 미묘한 기미(機微)를 살피고, 밖으로는 모든 부처님의 대비원력(大悲願力)을 골똘히 생각해 보아,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면 어느덧 자기 자신이 차츰 기록해지고, 이러면 내가 이제부터 사람이 되어 가나보다 하는 환희심이 난다.

이런 환희심의 도수가 잦을수록 그는 수행(修行)이 깊어 가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고 이와는 반대로 탐욕만 자꾸 성해 질 것 같은면 무엇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혼란되어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 그러다 발심(發心)이 중요하다. 발심은, 진정한 발심이란 것은 참회 속에서 솟구쳐 오

르는 것이다. 이렇듯 자꾸만 안으로 부처님을 모셔 들고 밖으로는 부처님의 대비원력을 세워 한결같이 정진하고, 거듭 참회하고, 발심하고 그럴 것 같으면 어느덧 저도 몰래 오래두고 꿈으로 그리던 것이 깨쳐질 때가 온다.

그러면 그 때에는 오직 일심(一心)이라는 지극한 정성이 어린 평등한 그 자리에서 자신이 높고, 앉았고, 서고, 행동하는 것을 알게 된다. 이를 일컬어 무애자재(無?自在)라고 한다.

오랜 기간 이와같이 계속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보살(菩薩)의 경계에 깊이 들어가, 비록 우리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하는 육진(六塵)에 끄들리더라도, 그에게는 이미 그런 것은 아닌 번뇌(煩惱)·망상(妄想)이 일어 날 것이지만, 비록 번뇌·망상이라 할지라도 거기 부끄러울 것은 없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모든 중생(衆生) 건지기 사회사업(社會事業)에 몸을 바쳐 일하는 것이다.

이와같이 참회는 절대로 필요한 것이다. 우리들은 지저분하고 값지 않은 짓을 한다. 값지 않은 짓, 그런 것은, 모두 어느 때부터 비롯된 것일까? 아 몇 만겁이나, 몇 억만 겁이나, 우리는 비롯된 그 시간을 측정할 수가 없다. (我昔所造諸惡業)

비웃음을 알 수 없는 허허 망망한 저 시간의 바다에서, 탐욕과 분노와 치사스런 미련·고통이 정념에 뒤엉키어, 우리는 허둥거리어 악업을 지으면서 왔다. (皆由無始貪瞋癡)

값지 않은 짓, 우리들은 악업을 어떤 기관을 통해서 했던 말인가? 결국 우리들은 악업을 어떤 기관을 통해서 했던 말인가? 결국 우리들은 몸으로 입으로 뜻으로, 몸이 하는 행동, 입에서 짓거리는 망령된 말들, 그릇되고 지저분하고 망치스런 생각들,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는 악업을 지었다. (從身口意之所生)

이제야 진심으로 참회합니다. 잘못되었던 것을 참회합니다. (一切我今皆懺悔)

이 글은 지난해 12월 발간된 <효당 최범술 문집(편자·효당사상연구회 회주 원화 채정복) 전 3권(민족사 계) 중 제 2권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이 글은 지난해 12월 발간된 <효당 최범술 문집(편자·효당사상연구회 회주 원화 채정복) 전 3권(민족사 계) 중 제 2권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이 글은 지난해 12월 발간된 <효당 최범술 문집(편자·효당사상연구회 회주 원화 채정복) 전 3권(민족사 계) 중 제 2권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이 글은 지난해 12월 발간된 <효당 최범술 문집(편자·효당사상연구회 회주 원화 채정복) 전 3권(민족사 계) 중 제 2권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이 글은 지난해 12월 발간된 <효당 최범술 문집(편자·효당사상연구회 회주 원화 채정복) 전 3권(민족사 계) 중 제 2권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이 글은 지난해 12월 발간된 <효당 최범술 문집(편자·효당사상연구회 회주 원화 채정복) 전 3권(민족사 계) 중 제 2권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이 글은 지난해 12월 발간된 <효당 최범술 문집(편자·효당사상연구회 회주 원화 채정복) 전 3권(민족사 계) 중 제 2권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이 글은 지난해 12월 발간된 <효당 최범술 문집(편자·효당사상연구회 회주 원화 채정복) 전 3권(민족사 계) 중 제 2권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이 글은 지난해 12월 발간된 <효당 최범술 문집(편자·효당사상연구회 회주 원화 채정복) 전 3권(민족사 계) 중 제 2권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이 글은 지난해 12월 발간된 <효당 최범술 문집(편자·효당사상연구회 회주 원화 채정복) 전 3권(민족사 계) 중 제 2권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이 글은 지난해 12월 발간된 <효당 최범술 문집(편자·효당사상연구회 회주 원화 채정복) 전 3권(민족사 계) 중 제 2권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이 글은 지난해 12월 발간된 <효당 최범술 문집(편자·효당사상연구회 회주 원화 채정복) 전 3권(민족사 계) 중 제 2권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이 글은 지난해 12월 발간된 <효당 최범술 문집(편자·효당사상연구회 회주 원화 채정복) 전 3권(민족사 계) 중 제 2권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이 글은 지난해 12월 발간된 <효당 최범술 문집(편자·효당사상연구회 회주 원화 채정복) 전 3권(민족사 계) 중 제 2권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이 글은 지난해 12월 발간된 <효당 최범술 문집(편자·효당사상연구회 회주 원화 채정복) 전 3권(민족사 계) 중 제 2권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이 글은 지난해 12월 발간된 <효당 최범술 문집(편자·효당사상연구회 회주 원화 채정복) 전 3권(민족사 계) 중 제 2권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이 글은 지난해 12월 발간된 <효당 최범술 문집(편자·효당사상연구회 회주 원화 채정복) 전 3권(민족사 계) 중 제 2권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이 글은 지난해 12월 발간된 <효당 최범술 문집(편자·효당사상연구회 회주 원화 채정복) 전 3권(민족사 계) 중 제 2권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이 글은 지난해 12월 발간된 <효당 최범술 문집(편자·효당사상연구회 회주 원화 채정복) 전 3권(민족사 계) 중 제 2권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이 글은 지난해 12월 발간된 <효당 최범술 문집(편자·효당사상연구회 회주 원화 채정복) 전 3권(민족사 계) 중 제 2권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이 글은 지난해 12월 발간된 <효당 최범술 문집(편자·효당사상연구회 회주 원화 채정복) 전 3권(민족사 계) 중 제 2권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이 글은 지난해 12월 발간된 <효당 최범술 문집(편자·효당사상연구회 회주 원화 채정복) 전 3권(민족사 계) 중 제 2권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이 글은 지난해 12월 발간된 <효당 최범술 문집(편자·효당사상연구회 회주 원화 채정복) 전 3권(민족사 계) 중 제 2권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이 글은 지난해 12월 발간된 <효당 최범술 문집(편자·효당사상연구회 회주 원화 채정복) 전 3권(민족사 계) 중 제 2권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65세이상 승려연금 지급 종단



불교 조계종

계율청정종단

■종 정

총무원장: 혜인 사서실장: 대산

울 원 장: 혜일 중앙선원장: 도일

■원 로 원 : 성민, 혜일, 혜정, 일봉, 혜경, 천불, 수원, 혜원

방 장: 대련, 혜경, 혜정, 일봉

의산장(경기도무형문화재): 수원

■총무원

부 원 장: 동안, 도불
총무부장: 천산
재무부장: 해만
교무부장: 해일
사회부장: 정덕
문화부장: 지운
총무국장: 남산
재무국장: 정일
교무국장: 지성
사회국장: 범일
문화재관리국장: 진각

교육원장: 상산
교육부원장: 광덕
교육부장: 태산
교육국장: 진산

포교원장: 정산
포교부장: 법진
포교국장: 무량
국제포교원장: 중산청목

기획원장: 진성
기획실장: 노사나

■총단법인

사단법인 불교조계종 학교법인 삼화학원
사단법인 천지무예도합회
사단법인 행복한사회
의료법인 효성
재단법인 가평그린공원
사회복지법인 정향
사회복지법인 인주

■총 립

서울총림 혜인사
삼화총림 백화사
부산총림 흥국사
경남총림 백천사
강원총림 조주선관
충북총림 청룡사

■총단사업부

대표이사: 노사나
불교조계종
좋은상조: 김호철
H&G: 이영호
금용사업본부

■전국신도회

고문: 김윤주
회장: 설주성
사무처장: 이상훈
부산신도회장: 허민
강원신도회장: 김현재

■청년신도회

회장: 손영진
홍보처장: 박영실
총무계장: 조일
기획실장: 심원일

◇ 학교법인 삼화학원 ◇

■ 불교조계종대학원

학 장: 혜일 부학장: 일봉
교 수: 해운, 월곡, 봉선, 혜정, 정산, 박수구, 김수정, 김동균
조 교: 손정, 최정화
운영이사: 성산, 원명, 본각, 일현, 정현, 지각, 탄공, 해남, 법해, 정호, 현덕, 일행, 동명, 무진, 만공, 무공, 가산, 진법, 용산, 여연, 도원, 대각, 법산, 혜능, 대산, 지성

■ 불교조계종대학원

원 장: 혜인
교 수: 상산, 정수, 송암, 성민
운영이사: 광운, 도의, 영봉, 도홍, 성해, 성하, 지원, 해법, 성공, 수원, 범우, 혜현, 지운, 지해, 도각, 동덕, 무량, 혜철, 정현, 철산, 덕산, 덕승, 진평, 동안, 진제, 연각, 성목

■ 중국남경종교의약대학

총 장: 오연화 부 학 장: 정오, 남산
한국총장: 손혜인 중교총장: 손영진
학생처장: 손영진 조 교: 심미, 유위, 손정 국제부교과장: 이안산
운영이사: 법정, 해담, 보현, 본각, 수옥, 향인, 수정, 현조, 금산, 지해, 지성, 원산, 해월, 성담, 화광, 진화

총무원: 서울 강남구 신사동 511-5 우 135-887
총무국 (02)511-2026-7 / 팩스 (02)511-2028
종단사업부: (02)549-1918

총무원실 (02)511-1080
불교조계종신문 (02)3445-7375-6
일간종국신문사: (02)511-1080

인터넷주소: 불교조계종.kr(www.shbuddhism.or.kr)
불교조계종신문: www.jogaejong.or.kr
불교조계종학원: www.njutcm.co.kr

남경종의약대학: www.njutcm.co.kr
E-mail 주소: samhwade@hanmail.net
samhwade@naver.com